

## 기획/ 인구주택총조사와 불자들 권리 찾기(上)

### 국민 20%로 종교인구 결정

예산 절감 등 이유로 90년만에 전수조사서 표본조사로 변경 국가정책 출발점... "적극 동참"

오는 24일부터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전면 개편돼 시행되는 가운데 불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국민 가운데 20%만을 선정해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 방식이 달라지는 데다가 올해는 특히 10년 주기로 조사되는 '종교 인구'가 조사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종단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요구된다.

올해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주민등록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등록센서스'와 선정된 20% 국민을 면대면 방문해 조사하는 현장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센서스'는 통계청이 성별과 나이, 소유 주택 등이 담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국민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심층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전국민 가운데 20%만을 선정해 현장조사 한다. 정부가 지난 1925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해 왔던 인구주택총조사를 인력 및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년 만에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교, 교육정도, 자녀 출산 계획 등

52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무엇보다 종교 인구는 10년 주기로 조사되기 때문에 불자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분석자료로 활용되는 데다 국가 지원 사업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여 인구, 가구, 주택은 물론 그 규모와 구조 등 개별특성까지 철저히 분석된다. 조사 결과는 사회전반적인 종교 지형을 파악하는 척도로 쓰이며 국가 종교 정책 예산이나 지원 사업에 있어 종교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일각에서는 오차 가능성이 있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된 까닭에 우리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 가구에 대한 조사가 인터넷으로 우선 이뤄지고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차후 현장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고령의 신도들은 인터넷 활용에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총조사는 정부의 종교 지원뿐 아니라 종단의 포교 방향과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자료"라며 "불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자들이 달라진 조사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www.census.go.kr) 조사는 오는 24일~31일까지며 방문 면접 조사는 11월 1일~15일까지 15일간이다. 이경민 기자



성선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은 때

### 가을이란

가을입니다. 하늘이 높은 만큼 햇살이 투명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는 햇살의 입자가 다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가을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까지 투명하게 합니다. 오래 전 지나온 시간의 길들이 다 보이고 누군가 가슴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두 손을 모으고 참회하게 됩니다.

가을이면 거짓과 고집의 시간들이 사라지고 정직한 고백의 시간들과 만나게 됩니다. 거짓으로 위장했던 시간들이 곳곳했던 고개를 숙이고 정직함으로 안을 보는 시간이 가을입니다. 거짓은 위선으로 당당함을 가장하지만 정직은 겸손함으로 안을 보게 합니다.

가을이 찾아온 산사는 한 권의 경전 같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끝없는 의미와 풍경을 열어 보여주어 줍니다. 별이 지고 선 새벽에서부터 햇살이 사라진 일몰과 먼 바다 건너 마을의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찾아오는 어둠은 가을 산사가 열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전입니다. 나는 그 경전을 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인생의 무상함과 삶의 미학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안인가, 밖인가? 머뭇인가, 떠돌인가?" 나는 부질없이 삶에 질문을 던지고 다시 산사의 경전을 보고 또 다시 보고는 합니다.

"이 가을에 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해주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서운하게 해서 안 될 것만 같다. 가을은 정말 이상한 계절이다." 법정스님의 <가을 이야기>라는 글 속의 글귀입니다. 법정스님의 글이 아니어도 가을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가을에는 당신도 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듯, 내가 언제가 죽음을 마주하게 되듯 당신 역시 그렇다는 것을 이 가을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가을 날해지는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에 눈물이 나는 것은 자비가 비로소 가슴 속에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란 오래 동안 외출했던 자비가 일몰과 함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눈물 하나바치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시간이 가을입니다. 남해 염불암

##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자비나눔' 영등포 쪽방촌 찾아 주민 격려 도우미봉사회 지원금도 전해

“여러분은 우리들의 소중한 이웃이자 형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날 방문은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이후 6년째 매달 한차례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쪽방촌을 방문한 총무원장 스님은 비좁고 열악한 거주 공간을 돌아보며 쪽방촌 주민에게 단주를 선물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주민들을 위해 점심공양을 직접 배식했으며,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 1000만원을 격려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이날 10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제15회 쪽방촌 주민위안잔치'도 열렸다. 분향사에 앞서 풍물패 공연이 진행되고, 가수들의 노래와 주민들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행사 동참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전달되는 등 쪽방촌 주민들이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불교계에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 소속으로 조계사에서 지원하는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영등포쪽방촌에서 급식 봉사를 진행하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불과 3.3㎡(1평)에 불과한 거주 공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영등포쪽방촌은 서울시내 5대 쪽방 밀집지역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541세대에서 6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스님이 한 주민의 집을 찾아 단주를 선물한 뒤 건강을 기원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주민 가운데 60~70%는 기초수급에 의존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또는 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영등포 쪽방촌 방문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총무원 사

회부장 정문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학인 스님들과 조계종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2016년도 예산안 등 심의 11월3일 중앙총회 정기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 제6차 회의를 열고 11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제204회 정기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제204회 정기회에서는 지난 203회 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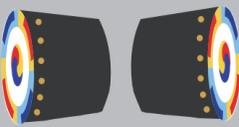
서 이월된 법계법·총립법·해외특별구법 개정안 등 총법개정안과 중앙총회의원 영담스님 의원 제명의 건, 불기 2560(2016)년도 중앙총무 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총무 기관 및 지역·특별분담금사찰 중정감사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또 원로회의 의원 추천 및 포교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종합학교관리위원 선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 복수 추천 동의의 건 등 인사 관련 의안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총회 기간내에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일정은 의장단에 위임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 스님들은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각 상임분과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안접수 마감은 오는 27일, 종책질의 접수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1370주년개산대재  
2015. 10. 17 ~ 10. 21

## 개산대재 영축문화축제

청한 가을의 향기가 천년의 도량을 감싸 안을 듯 좋은 절기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개산조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 1370주년을 기리는 환희의 야단법석이 펼쳐집니다.

### 행사일정

어린이수계식	10월 17일	설법전	11:00
재흥전지	10월 17일	박물관 앞 무대	13:00
청소년연스경연대회	10월 17일	설선당 앞 무대	14:00-17:00
괘불이온	10월 18일	박물관 - 괘불대	10:00
괘불현공	10월 18일	괘불대	10:30
다문화공연	10월 18일	설선당 앞 무대	13:00-15:00
통도사 확충	10월 18일	괘불대 무대	15:00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10월 19일	설선당 앞 무대	12:00
괘불탱 특별전	10월 20일	박물관	13:00
부도현다례	10월 20일	부도전	14:00
개산조당 영고제	10월 21일	개산조당	09:00
법요식	10월 21일	설법전	10:00

이번 개산문화대제 주간에 괘불이온식을 화려하게 재현 할 예정이며 자장율사스님의 영고제를 통도사 본말사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올릴 것입니다.

※ 개산문화대제 주간에 진행 될 내용들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사배정은 10월 17일(토) - 10월 21(수)까지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 문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 382-7182 Fax. (055) 382-7196 www.tongdosa.or.kr



## 통도사 어린이 수계식



천년의 향기가 숨쉬고 있는 영축총림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안하시고 금강계단을 쌓아 깨를 설하신 戒律의 근본도량입니다. 울미던 어린이 수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부 동참하시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합니다.

입재 2015년 10월 17일(음 9.5)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통도사 금강계단  
대상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향전 영배 합장



영축총림 통도사